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오늘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4.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제금을 모금을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5. 오늘 예배 후 5시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6. 부활절에(4/9) 세례식이 예정되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15세 이상된 성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세례 전에 세례 교육과 문답이 진행됩니다. 김경현 목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7. 성경 네러티브 강의인 "성경은 드라마다"를 3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8주간 줌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에 사인업 해주시고, <성경은 드라마다> 책 주문 여부도 체크해 주세요.
8.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5일: 소정진 자매
 - 6일: 김명화 집사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한혜경 집사 / 번역: 김명하 형제
- 3월 안내 및 봉사: 사랑 목장

*교회 향후 일정

- 부장회의: 3월 12일 예배 후 4시 30분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 김경현 목사 KPCA 교단 중앙노회 참석: 3월 13-14일 시카고

다하나교회

One Heart Korean Church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Zoom으로 오후 8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신명기 6:4-5절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박성조 집사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창세기 22장 1-14 절 — 인도자

설교 — 신실하신 하나님 — 김경헌 목사

성찬식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 다같이

봉헌찬송 —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목회 칼럼 / 주님을 먹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라틴 말로 불려진 노래인데 Panis Angelicus라는 제목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른 곡을 자주 듣곤하는데 매우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라틴어를 배울 때 심심풀이로 번역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원곡과 상당히 다르게 오역된 것 같아 시작한 건데 그 의미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P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천사들의 빵이 사람들의 빵이 되었다.

Dat panis coelicus figuris terminum

하늘의 양식이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끝을 보여주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표현입니다.)

O 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오~ 신비로운 일이여, 주님을 먹는구나

Pauper, pauper, servus et humilis

Pauper, pauper, servus et humilis

가난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먹는구나)

제가 이 노래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은 ‘주님을 먹는구나 (manducat dominum)’입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성만찬에 있습니다. 성찬 또는 성만찬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만든 신(神)을 감히 먹는 독특한 종교 예식입니다. 기독교의 신은 인간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먹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감히 먹습니다. 그 놀라운 자기 내어줌과 희생을 우리 몸과 영혼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 것이죠. 오늘도 우린 주님을 먹습니다.